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성경: 행 1:3, 8-9, 8:12, 14:22, 19:8, 20:25, 28:23, 31

Ⅰ. 누가복음은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술한 것, 곧 이 땅에 계셨던 육체 되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을 통하여 땅에서 수행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 행 1:8-9.

A. 복음서들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홀로 수행하신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뿌리시는 것이었으며, 아직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다 — 눅 8:4-15.

B.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 안에서 믿는 이들을 통해 수행하시는 사역은 그분 자신을 확산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온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다 — 행 1:8, 8:12, 14:22, 19:8, 20:25, 28:23, 31, 마 16:18, 엡 1:23, 3:19.

Ⅱ.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된 주제였다(8:12, 14:22, 19:8, 20:25, 28:23, 31).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십 일의 기간을 통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다(1:3).

A. 복음서들에서는 주 예수님 자신이 왕국 복음을 전하셨다 — 눅 4:43.

1.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 눅 17:21, 막 4:3, 26.
2.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 요 3:5, 벧후 1:3-11.
3.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생활이며,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 롬 14:17, 갈 5:21, 엡 5:5, 계 20:4, 6.
4.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계 21:1-4, 22:1-5, 14.
5.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구주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으로 전하신 것이다 — 엡 4:18.
6.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

적인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 오신(눅 17:21-22) 구주이고, 두 번째 오실(17:23-30) 구주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실(17:31-36) 구주이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심으로(17:37) 온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실(계 11:15) 구주이다.

7. 하나님의 왕국은 구주 자신이고, 이 구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셨으나 지금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 — 눅 17:21, 고후 13:5, 골 1:27.

a. 어디든지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오신다 — 눅 4:43, 17:21.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신다 — 눅 8:5, 10.

c.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안에 있다 — 요 14:20, 롬 8:10, 14:17.

B.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신 주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러한 합당한 인식을 갖게 하셨을 것이다.

1.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확산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번식시키신 것임을 틀림없이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 요 3:3, 5.

2.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번식, 곧 그리스도의 확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 행 1:8-9, 8:12, 20:25, 28:23, 31.

Ⅲ.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하신 것이다 — 벧후 1:3-11.

A.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 — 막 1:15, 요 3:3, 5.

B.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 롬 14:17.

C.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 고전 6:9-11, 갈 5:19-21, 엡 5:5, 계 20:4, 6.

D.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 계 21:1-4, 22:1-5, 14, 17.

Ⅳ.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 행 14:22, 20:25.

A.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이시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확장이다 — 행 1:8, 8:12.

1.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고, 이분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뿌리러 오셨다. 이것은 복음서들에 계시되어 있다 — 막 4:3, 26.

2.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을 본다 — 행 8:1, 12, 13:1-4.

B.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다 — 계 1:9, 11.

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Ⅵ.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시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효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이다 — 행 19:9, 23-41.

Ⅶ.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다 — 행 28:23, 31.

A.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말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 행 28:23.

B.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며,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 행 28:3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이 사십 일 동안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왕국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상고함으로써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해 많이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십 일 동안 왕국에 관한 새로운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주님은 복음서들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반복하셨을 것이다. 복음서들에서 주님께서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주님께서 아직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이 없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생명과 인격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

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시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으로 형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누림을 가지고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이다.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막 1:15),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성한 본성과 일치한다(요 3:3, 5).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의 선민인 믿는 이들 안에 생명의 씨로 뿌려져(막 4:3, 26)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눅 17:21).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요 3:5),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벧후 1:3-11).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생활이며(롬 14:17),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갈 5:21, 엡 5:5).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신 주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러한 합당한 인식을 갖게 하셨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확산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번식시키신 것임을 틀림없이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번식, 곧 그리스도의 확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2974-2975쪽)

하나님의 왕국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일반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이다. 이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는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그리 많이 관련되지 않는다.

아담의 낙원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고, 거기서 이 왕국은 아담을 다스렸다. 그러나 낙원 안에 있던 아담에게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구약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로서의 왕국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은 일반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한다.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의 이러한 방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한다. 3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새로운 출생을 갖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이미 소유한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

므로 거듭남이란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의 생명 외에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또 다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또 다른 출생을 요구한다.

각 왕국마다 특별한 종류의 생명을 갖고 있다. 식물의 왕국 안에 있는 식물들은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의 왕국 안에 있는 동물들은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원칙으로 사람의 왕국 안에 있는 인류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왕국의 일들을 알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인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영역이다.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이 요구된다. 신성한 생명만이 신성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3:5)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가복음 4장은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3절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한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마 13:37).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막 4:14) 생명의 씨로(26절) 사람들 안에 뿌리셨고, 그 결과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면서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의 씨로서 뿌려지신 하나님-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진 후에 그들 안에서 자랄 것이고 결국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땅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주 예수님은 왕국의 씨를 사람의 마음 안으로 뿌리셨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흙에 비유된다. 우리의 마음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신 밭이요 흙이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자 뿌려진 씨 둘 다이시다.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시며, 이 씨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졌다. 이제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에서 자라고 발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는 곧 왕국일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씨의 비유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의 발전을 본다. 2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람'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신 주 예수님이고, '씨'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이다(요일 3:9, 벧전 1:23).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고 수확을 산출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임을 가리킨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주님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생명의 씨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 준다.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낟알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땅은 좋은 땅이다(막 4:8). 좋은 땅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한 좋은 마음은 그 안에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땅 속에 뿌려져 수확의 시기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씨임을 계시한다. 그 씨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뿌려진 흙이다. 이 씨는 자라서 결국에는 왕국의 완전한 나타남인 수확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왕국은 우리 안으로 뿌려져 수확의 때까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생명의 씨이신 주 예수님이다. 경작물이 익을 때 왕국의 완전한 나타남인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계신 그리스도의 성장은 왕국의 과정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왕국 안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 왕국의 과정에 있다. 우리는 밀의 수확을 예로 들 수 있다. 밀밭에서 씨들은 흙 속에 뿌려진다. 그다음에 그 씨는 자라서 여린 줄기가 난다. 그러한 성장은 이삭과 열매를 내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 다음에는 밭의 추수가 있다. 이것은 왕국의 과정과 나타남에 대한 그림이다. 지금 우리는 왕국의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장은 우리를 수확으로 이끌 것이며, 그 수확은 왕국의 완전한 나타남이 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국의 실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라는 의미에서의 특별한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 안에서 왕국의 실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계시되었다.

21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러분'은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생명 안에서 왕국의 실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고 단지 그들 가운데 계실 뿐이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답변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임을 강하게 가리킨다. 사실상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록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음을 알려 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놀라운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재가 사실상 생명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눅 17:20-21)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증명하며, 그분은 왕국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서 질문을 받고 계셨을 때 그들 가운데 계셨다. 구주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오신다(22절).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시다. 부활 이후로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요 14:20, 롬 8:10). 따라서 생명 안에서 왕국의 실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롬 14:17).*(신약의 결론, 왕국, 14-18쪽)*

왕국의 실재

그리스도와 확대와 확장

왕국의 실재는 또한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확대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성장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확대는 그분의 확장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해방하시고(5절)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요 3:5),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왕국 곧 교회(마 16:18-19)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왕국 안에 있었으며(계 1:9), 구속받고 새로 태어난 모든 믿는 이들 또한 이 왕국의 일부이다(롬 14:17).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대, 곧 그분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이것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왕국이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국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특히 왕국은 우리의 타고난 사고에 의해서는 관찰될 수 없으며, 타고난 사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영적인 실재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

오늘날 왕국의 실재는 그 영이신 주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왕국이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하나님의 영의 실재임을 가리킨다. 그 영은 주 예수님의 실재이시다. 왜냐하면 그 영은 그분의 인격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실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국은 주 예수님의 영적인 실재화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실재화할 때, 우리는 왕국의 실재를 갖는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왕국이심을 계시하신다. 왕국 자체이신 그분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서 자라심으로 확대와 확장을 얻으시며, 이 확장이 곧 왕국의 실재이다. 따라서 왕국의 씨와 왕국의 확대는 모두 왕국의 실재이다.

그 확장은 왕국의 다스림의 영역임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주 예수님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국의 입구는 거듭남이고(요 3:5), 그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벧후 1:3-11).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생활이며(롬 14:17),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계 20:4, 6)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갈 5:21, 엡 5:5).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계 21:1-4, 22:1-5).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일 것이다. 새 땅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영역일 것이다. 이러한 다스리는 영역은 새 예루살렘의 빛 비춤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빛 비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산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신약의 결론, 왕국, 104-106쪽)*